

- [교회 표어] · 은혜충만 · 진리충만
- [교회 3대 목표] · 세계선교 적극화 · 일천교회 설립 · 전성도 성령충만
- [성도생활의 목표] · 전도와 봉사에 힘쓰자 · 모이기를 힘쓰자 · 성도다운 교양과 품위를 갖추자



은혜와진리교회 모바일 홈페이지

“세계선교에 동참합시다!”

본 교회 세계선교연합회는 세계 여러 국가 많은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여 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며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본 연합회에서는 이 마지막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기도로, 물질로, 받은 은사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할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세계선교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 각 나라별 선교회

구분	중국선교회	인도선교회	말레이시아선교회	일본선교회	인도네시아선교회	페루선교회	미얀마선교회	나이지리아, 태국선교회
담당성전	안양, 산본, 포일, 부곡	수원, 영통, 진위, 진원, 동탄, 안중, 평택, 용인, 남양, 을지, 전주요자	안산, 시흥, 시흥, 인천, 부천, 부평, 영종도	과천, 판교, 강남, 구리, 광주	광명, 영등포, 원주, 천안	일산, 김포, 장유, 전주평화	수원, 양주, 서산, 당진	수원, 대구, 세종
연락처	T:031-448-1793 T:031-443-3731~2 (주내 112) C.P:010-4564-7539	C.P:010-5358-1233	T:031-487-1793 F:031-449-1397 C.P:010-5018-3686	T:031-448-1793 F:031-449-1793 C.P:010-8277-5200	T:02-894-3731 C.P:010-8277-2944	T:031-906-3731 C.P:010-5335-7050	C.P:010-5358-1233	C.P:010-5358-1233
성가단	그레이스 앤 트루스 미션콤파이어							

- ◆ 주요선교업무
- IMCR (International Ministries & Church Revival Conference: 세계선교와 교회부흥 회의) 세미나 개최 및 회보 발행
 - 문서, 방송선교 지원
 -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회
 - 세계선교연합회 소식지 발간
 - 각 지역 선교센터 설립 운영 지원
 - 당회장 목사님과 우리교회 해외 선교행사시 동참
 - 당회장 목사님의 외국어 설교집 발간
 - 본교회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홍보

은혜와진리 세계선교연합회 (GRACE AND TRUTH INTERNATIONAL MINISTRY)

교회 중·고등 학생 <자율학습 비전스쿨 : 온라인 ZOOM 독서실>

① 온라인 ZOOM 독서실 참여 학생 모집

- ▶ 대상: 자율학습을 원하는 우리교회 중·고등부 학생 누구나
- ▶ 장소: 각자 방 또는 독서실에서 ZOOM 온라인 모임 링크로 접속
- ▶ 방법: 멘토 봉사자와 온라인 ZOOM 공간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공부를 시작한다. 입시·신앙 상담, 모르는 문제를 실시간으로 멘토에게 물어볼 수 있다.
- ▶ 일시(1차): 3월 6일(월) ~ 3월 24일(금)/3주간, (※2차는 4월 초 시작예정) 평일-오후 7시~10시/3시간, 수요일-9시~11시/2시간(이후 12시까지 자율학습 가능)
- ▶ 모집기간: 상시 모집 (신청자에게 줄링크 개별공지)
- ▶ 문의: '자율학습 비전스쿨 온라인 ZOOM 독서실' 담당자 (☎ 010-9175-2356)
- ▶ 신청방법: 아래 QR코드 접속 후 신청



신청방법



② 온라인 ZOOM 독서실 참여 봉사자 모집

- ▶ 대상: 위와 같이 중·고등부 학생들의 자율학습 지도가 가능한 성도님
- ▶ 신청방법: 위와 동일한 QR코드로 접속 후 신청서 작성



- 안양**: 안양시 만안구 인양로 193 T.031-443-3731~2, 446-9184
수원: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3 T.031-225-3731, 234-3732
안산: 안산시 화랑로 303 (교전동) T.031-486-3731~2
과천: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02-502-3731
시흥: 시흥시 신천로 44번길 20-1 (신천동) T.031-318-3731~2
광명: 광명시 하인로 254(하인동) T.02-894-3731
부평: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청천동) T.032-507-3731~2
부곡: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031-462-3731
판교: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영등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2길 5 T.02-2632-3731
산본: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031-395-8227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032-469-3742
부천: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032-652-3731~2

- 일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중산동) T.031-906-3731
시화: 시흥시 서촌삼가길 17 (정왕동) T.031-497-3732
영종: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031-205-3732
구리: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031-567-3731
포일: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031-422-9200
전원: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031-298-3739
전원(수양관,본관) T.031-227-5992-3, 227-3739
김포: 김포시 청송로 4 (장기동) T.031-985-3731~2
평택: 평택시 정암로 126-19 (이충동) T.031-662-3731
안중: 평택시 안중읍 한촌길27번길 9-8 T.031-684-3731
천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유량로 144 T.041-555-3731
전주(평화):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12길 8-2 T.063-225-3731
양주: 양주시 평화로1416번길 34-26 (덕계동) T.031-863-3731
원주: 강원도 원주시 판부면 오성마을길 30 T.033-764-3735
강남: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220 (수서동) T.02-459-3731
장유: 경남 김해시 덕정로12번길39-11 (광동동) T.055-312-3731
용인: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 37 (역북동) T.031-337-0688
영종도: 인천광역시 중구 햇내로48 (운서동) T.032-751-3731
-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원신충남로41번길30 T.042-471-3736
광주: 경기도 광주시소포읍 마루들길 168 T.031-763-3720
남양: 화성시 시청로102번길 56 (남양리) T.031-355-3729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278 (내당동) T.053-522-3731
서산: 충남 서산시 무석3로 11 (석림동) T.041-667-3731
울진: 수원시 장안구 하롤로 55 (천천동) T.031-271-3731
동탄: 화성시 동탄공원로1길 26-71 T.031-8015-3731
당진: 충남 당진시 대호만로 123 (재운동) T.041-353-3731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남세종로420 (보람동) T.044-862-3732
전주(효자):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촌2길 32-5 T.063-239-1004
인제: 강원도 인제군 삼남면 내린천로 2572 T.033-463-1312
경주: 경북 경주시 용담로 46-5 (황성동) T.054-772-7867
아산: 충남 아산시 염치읍 방현동길39번길 21-18 T.041-534-3731~2
충주: 충북 충주시 거룡1길 36 (용산동) T.043-848-3731
진위(제2수양관): 평택시 진위면 동부대로 30 T.031-662-3731
산서: 전북 장수군 산서면 성계로2 (쌍계리) T.063-351-7518
진주: 경남 진주시 금산면 중천로 8-7 T.055-752-6675
은양: 충남 아산시 청운로 180 T.041-533-3731

은혜와진리소식

2023년 3월 12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인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817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받은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며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인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 금경섭 -

저는 수원성전 교회학교에서 유년부와 영어 성경학교를 섬기는 교사입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모태신자입니다. 수원에서 태어나서 부산과 여주에서 살다가, 초등학교 1학년말에 수원으로 다시 올라와서 은혜와진리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공부를 하면서, 주일은 제 마음과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하는 날이라는 생각이 제 마음 속에 깊이 뿌리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고등부 시절에 한번도 결석한 적이 없어 졸업예배에서 3년 개근상을 받았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등부를 졸업한 후에는 교회학교 유년부 교사와 주일저녁 예배 성가대원으로 봉사하고 청년봉사선교회에서 새가족부와 교육부를 섬기면서 믿음이 성장하며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을 하여 대학원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에 처음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한 초기에는 매 주말마다 수원에 올라가 우리 교회의 청년부 토요일모임에 참석하고 주일에도 열심히 예배 드리며 힘껏 봉사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고 대학원에서의 업무와 연구과제가 과중하여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힘이 들자 주말에도 그대로 대전에 머무는 때가 많아지며 신앙의 열정이 식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자 일상의 다른 모든 생활도 흐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더 열심히 예배 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와 힘을 얻고 어려움을 극복했는데, 신앙생활에 태만하자 저의 삶 전체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대학원 일도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대학원 1학기가 끝나갈 무렵, 저의 모든 생활을 점검하고 반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속 생활해서는 안 되겠다. 여기 대학원은 학업과 나의 앞날을 위해 더없이 좋은 곳이지만 그러나 지금 내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다. 이제 수원으로 올라가자. 우리 교회가 가까운 곳에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믿음과 열정을 회복하자.’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리하여 수원으로 다시 올라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 믿음을 회복하고 대학원 생활도 잘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다.”(고린도후서 4:18) 그 때 이후로 제 삶의 우선순위와 목표가 하나님중심, 교회중심의 신앙생활로 확고하게 정립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유년부 교사 직분에 더 충성하고 청년봉사선교회에서 구역장 직분을 맡아 후배 청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좋은 믿음의 선배가 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교팀에서 봉사하며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었습니다. 또한 교회학교 영어성경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는 기회가 주어져 기쁨으로 봉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어성경학교 봉사를 통해서 저도 성경을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영어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병역의무를 위해 대체 군복무제도인 전문연구요원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전문연구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영어실력이 무척 중요했는데, 영어성경학교 봉사가 큰 도움이 되어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혼 적령기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같은 청년부 선교팀에서 봉사하는 자매와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자매의 특히 전도하는 모습과 그 열정에 반했습니다. ‘이 자매와 결혼하면 함께 열심히 전도하며 신앙생활을 더 잘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옴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전도서 4:9~12) 저희 두 사람은 이 말씀으로 뜻을 같이하고,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2019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베풀어 주셔서 결혼 3개월 만에 아내가 아이를 잉태하고,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므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냈던 것들을 생각하며 딸의 이름을 “은유”라고 지었습니다.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게 받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태복음 11:28~30)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아이가 되길 소망하며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권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심으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원 재학 중에 취업하여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셔서 대학원 박사과정을 잘 마치고 졸업하였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시편 119:165) 아멘!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면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평안을 주시고 또한 장애물도 극복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항상 제 마음이 평안하고 든든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지나 온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무조건 ‘예’하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깊이 깨닫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실천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인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인 것을 저는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린도후서 1:20)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므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16:8~11)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33절~54절 강해 설교”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 목사

구역예배

- **성경: 누가복음 11장 33절~54절 강해 설교**
- **찬송: 은혜와진리찬양 363장**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54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요구하기를 당신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 달라고 하니 예수께서 선지자 요나와 남방 여왕에 관하여 언급하셨습니다.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서 외치니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였고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먼 나 곳에서 왔는데,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의 실상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상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등불을 켜서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밀실에 두거나 그곳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등잔대 위에 둡니다. 그 목적은 발산되는 빛으로 주위를 밝히기 위한 것이며 또한 실내로 들어가는 사람이 그곳의 사물을 분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등불 비유에는 두 가지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메시아라면 ‘하늘로서 오는 표적’으로써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마치 등불같이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음을 표명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하시는 놀라운 기사와 이적은 그 모두가 메시아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은밀한 곳에서 비밀리에 활동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진리의 빛을 발하는 등잔대 위의 등불입니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를 지적한 것입니다.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하였습니다. 등불 빛이 비추어도 시력이 없는 사람은 등불에서 비추는 빛을 전혀 의식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은 그릇된 고정관념과 자만심(自慢心)으로 인하여 심령의 눈이 성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메시야로 오셔서 말씀하시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별다른 표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눈이 성하면 빛을 분별하고 그로 인하여 온 몸의 상태를 환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눈이 빛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빛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온 몸이 어둠 속에서 같이 자유롭게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어두움에 처하여 있음은 복음의 빛이 비취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불신앙과 인본주의 사상으로 마음눈이 성하지 못하여 복음의 광채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되는 복음과 구원의 빛을 보게 되면 그 빛에 의하여 모든 사물의 실상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천지만물과 인류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과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가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성경을 읽거나 성경적인 설교를 들을 때 아무 감흥이나 깨달음이 없다면 마음눈이 성하지 아니한 상태입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시 36:9) 하였습니다. 시력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사물의 실상을 알 수 없고, 빛이 있어도 시력이 없으면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인 빛과 시력을 모두 받았기 때문입니다.

37절에서 4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예수께서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예수께서 요나의 표적과 등불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던 한 바리새인이 함께 식사하자고 예수님을 초대하였습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서 교제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본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조상들 또는 장로들에 의하여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율법이 있습니다. 전승(傳承), 전통(傳統), 관습(慣習), 유전(遺傳)에 의한 구전율법(口傳律法)은 에스라 선지자 이후 서기관들에 의해 613개 조문으로 성문화되었습니다. “하라”는 긍정적인 형태로 된 계명은 248개이며,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형태로 된 금지 계명은 365개입니다. 248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부분 부분의 총합이고, 365라고 하는 숫자는 1년의 날 수에 해당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성경보다 이 유전에 더 큰 권위를 부여하였습니다. 식사하기 전 손을 씻는 관습은 바리새인뿐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도 철저히 지켰던 규범이었습니다. 이 규범은 장로들의 유전으로 내려온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관습을 몰라서 이거나 순간 잊어버리고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별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율법과 관습법의 핵심적 의미에는 관심이 없고 형식에 집착하고 허례허식과 가식하는 실상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관습법을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관습법을 자기

과시와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으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질타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다음의 구절에서 예수님의 의중이 표면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하였습니다. 사실 음식을 담은 그릇은 길 표면보다 그릇의 안쪽의 정결이 더 중요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외모보다 마음상태가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과 성품이 훨씬 중요합니다. 손 씻는 규범은 철저히 지키면서도 그의 마음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상태이면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게는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탐욕과 악독으로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손실을 주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돕는데 힘쓰므로 겉과 속이 다 깨끗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사람이 바리새인인데도 주님께서 이처럼 가차없이 고평하심은 이 문제가 신앙에 매우 중차대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 바리새인을 위하는 마음으로 하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4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고 운항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여기서부터 “화 있을진저”로 시작되는 여섯 가지의 화(禍)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선포됩니다. 저주의 의미라기보다 탄식의 뜻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첫 번째로 화(禍)가 있으리다 하시며 “너희가 박하고 운항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와 도움을 받아 살게 하는 도리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구제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처럼 선하고 귀중한 율법인데도 바리새인들은 이를 왜곡시키고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규제하는 법을 만들기 위한 근거로 삼은 것입니다. 십일조 제도 그러합니다. 수입의 십일조를 드림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로 표명하는 신앙행위입니다. 신앙을 말로써만 아니라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의무이상의 의미를 가진 신앙행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십일조의 이러한 근본 의미와 목적은 뒷전으로 하고 자신의 의를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려 하여 율법에 명시하지 아니한 아주 사소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박하고 운항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를 예로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채소를 특정종류인 ‘근채’라고 명시 하였습니다. (마: 23:23) 근채는 팔레스타인에서 많이 자라나는 미나리라고 식물이고 열매는 매우 작고 자극성의 매운 맛을 내어 양념이나 약재, 향료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대량생산하는 농작물이 아니고 사람들이 정원에서 재배하는 식물입니다. 향료나 양념 등으로 기본 소량을 십 분의 일로 구분 하려면 아주 정밀한 저울로 달아야 할 정도입니다. 이 한 가지만 보아도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핵심과 근본의 뜻을 얼마나 왜곡되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나칠 정도의 지구정성으로 십일조를 드리지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소홀히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사회의 규범이 되게 하는 일에는 무관심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면 도리어 불의한 자를 두둔하고 그 편에 가담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은 소홀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외식과 형식에 치우친 행위를 예수께서 들추어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일조 규정의 적용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폐단을 지적한 것을 어떤 사람들은 왜곡 해석하여 예수님에 의해 십일조 율법은 폐기되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는 바리새인과는 다른 방향에서 자신의 이기심이 발동하는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런 왜곡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라고 단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왜곡하고 허례허식을 행하는 것을 질타한 것이지 십일조 무용론을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4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두 번째로 화(禍)가 있으리다 하시며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의 교만과 명예욕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배의식 또는 각종 행사에서는 순서를 진행하기 위해서 자리배치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앞자리나 높은 위치의 자리에 앉는 것을 교만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강단을 없애버리고 예배순서를 맡은 분들이 예배당 맨 앞줄에 앉아 있다가 자기 순서가 되면 설교대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회당의 규모가 작을 경우는 무방하지만 규모가 클 경우는 뒷좌석에 앉은 분들은 설교자가 보이지 않아서 불편하게 됩니다. 교회당 설계자는 예배당의 규모와 형태를 감안하여 어디에서나 설교자가 보이고 설교자는 회중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강단 높이를 계산하여 설계합니다. 교회당 뿐 아니라 다수의 회집을 위한 공회당 건물은 대체로 그러합니다.

모임 참석자가 뒷자리나 모퉁이 자리에 앉아야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취향과 성격 그리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교만한 정신이니 좌석의 위치가 아닙니다. 언제나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처신하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생권의식을 가지면 스스로 운신을 어렵게 하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에 임하는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덧붙여 말씀하시기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하였습니다. 명예스럽게 되기를 원하고 명예를 존중히 여기는 명예심(名譽心)은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고 싶고, 존경의 인사를 받고 싶은 욕망이 지나치면 세속적 명예욕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최상 최고의 명예입니다.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세 번째로 화(禍)가 있으리다 하시며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습니다. 민수기 19장 16절에는 “무덤을 만진 자는 누구나 질 동안 부정할 것이니” 하였습니다. 평토장한 무덤은 잘 드러나지 않아서 부지중에 접촉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접촉한 자는 부정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마치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다른 사람이 부지중에 죄를 짓게 하는 원인 제공자와 같다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45절,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 니이다.”라고 항의하였습니다. 율법사 또는 서기관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입니다. 대체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판단을 근거 없고 부당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율법사들에 대하여 세 가지로 힐책하셨습니다. 그 첫째 힐책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하였습니다.

율법 전문가들이 그들이 율법을 세분화하고 장로들의 유전과 관습법을 부가하여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자기들은 회피할 방도를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중에 안식일 준수에 관한 계명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였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였으며 “이는 옛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출 20:8~11)

율법학자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일’에 대한 세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 ‘일 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2천 큐빗으로 정했습니다. 약 1킬로미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자기 집 앞으로 지나는 길의 끝에 줄을 가로질러 놓으면 거기서부터 1킬로미터 갈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식일에는 밭출의 매듭을 땔 수 없도록 규정했으나 여자가 허리띠에 매듭을 매는 것은 허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우물에서 물을 길기 위하여 두레박에 줄을 땔 수 없어도 여인의 허리띠를 사용해서는 매고 풀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짐을 옮길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손, 가슴, 어깨로는 짐을 옮길 수 없으나 손등, 발, 입, 귀, 팔꿈치, 머리털, 둔주머니, 속옷, 신으로는 옮길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짐을 나르는 일반적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이런 규정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규정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세심하게 주의하였습니다. 안식일 계명의 핵심과 근본 뜻은 첫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하고 참된 안식의 모형과 그립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중대한 뜻은 고의로 무시하고 형식적인 것에 집착하여 세부 규정들을 만들어서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고 율법 전문가인 자기들은 피하여 나갈 규정들을 적용하였습니다.

47절,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너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옮겨 여기는도다”

율법사들에 대한 둘째 힐책은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하였습니다. 율법사들은 입으로는 선지자들을 칭송했으나 사실은 죽은 선지자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죽은 선지자들을 위해서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웠습니다. 선지자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신들이 악함을 포장하는 위치에 불과하였습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선지자들은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49절에서 5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

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운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선전 자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라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유대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를 박해한 악행을 교훈과 경계로 삼아야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세례 요한, 사도들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손에 넘겨 십자가형을 받도록 하였고 교회와 사도들과 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선지자의 예언과 경고를 무시하고 범죄하였으므로 합당한 징벌을 받았지만, 아벨을 비롯하여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죽인 책임을 이 세대가 모두 져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음을 예수님이 언급했습니다. 이 말씀은 주후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성취되었습니다. 주후 70년 예루살렘 성이 로마 군대에 의해 함락될 때의 참상은 도저히 형언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5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의 열쇠를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 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사들에 대한 셋째 힐책은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율법사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들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자기중심으로 해석하지 않고 성경대로 해석하였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성경의 율법과 예언의 핵심은 구속자가 오셔서 죄인의 죄를 대속하시므로 그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십계명과 각종 법도를 613가지 엄한 규정으로 만들어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무거운 짐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 지식이라는 열쇠를 가로막아서 자신도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오늘날도 기독교 및 기독교회의 지도자라는 이름을 내걸고 가르치며 활동하는 자들 중에는 자신도 구원의 문으로 못 들어 갈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이단 교주들과 그들을 돕는 자들,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자들, WCC, WEA를 비롯한 종교다원주의 단체와 함께 하는 자들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와 교회 선택이 중차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비하면 신앙생활에서 다른 것은 사소한 것입니다. 사소한 일은 확대 해석하여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사탄의 꾀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53절, 5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예수께서 적나라하게 질타하는 말씀을 듣고 격분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함계로 빠뜨릴만한 온갖 질문을 퍼부어 그를 공격할만한 대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사소한 일관, 사람의 선입관, 고정관념, 아집, 탐욕, 교만한 정신은 철용성과 같아서 이를 무너뜨리고 벗어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헛된 철학과 사상, 그릇된 신앙을 버리고 성경에 계시된 대로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님의 역사로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